



(주)영조주택

나누는 삶터! 함께하는 문화! 영조주택

(주)영조주택(대표 윤호원)은 <나누는 삶터, 함께하는 문화>라는 기업목표 아래 입주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창조를 실현해 가는 중견 주택건설업체이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영조주택은 공주를 시작으로 대구, 청주, 수원 등 지방 및 수도권지역에

서 약 6천여 가구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지역적으로도 서울·수도권은 물론 대구 및 태백, 부천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약 5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 고품격의 차별화된 아파트로의 주택업계 선두로 우뚝 올라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 사업 실적 현황 및계획

<사업실적현황>

공주 영상정보마을	295세대	2001년 12월 입주
대구 아름다운 나날 1차	1,140세대	2003년 9월 입주
대구 아름다운 나날 2차	782세대	2003년 9월 입주
대구 아름다운 나날 3차	830세대	2003년 9월 입주
청주 아름다운 나날 1차	952세대	2003년 11월 입주
청주 아름다운 나날 2차	539세대	2004년 11월 입주
수원 인계동 렉시앙(오피스텔)	104세대	현재 분양중
수원오목천동 아름다운 나날	372세대	현재 분양중
청주 산남3지구 아름다운 나날	570세대	현재 분양중

〈 2005년 사업 계획 〉

용인 죽전 웰리드	75세대	2005년 3월 분양예정
부천 심곡동 재건축 아름다운 나날	97세대	2005년 3월 분양예정
태백 황지동 아름다운 나날	390세대	2005년 6월 분양예정
경산 조합 공동주택	2,000세대	2005년 상반기 분양예정
대구 매곡리 아름다운 나날	570세대	2005년 상반기 분양예정
대구 신서동 아름다운 나날	480세대	2005년 하반기 분양예정
대구 수성구 범어동	1,100세대	2005년 하반기 분양예정
대구 수성구 사월동	1,200세대	2005년 하반기 분양예정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아름다운 나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공간이 시작되는 날”이란 뜻을 가진 영조주택의 주택브랜드 ‘아름다운 나날’은 고객의 세심한 안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감각으로 구성되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신개념의 아파트 브랜드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상설자문단과 설계·인테리어·디자인·기술 등의 파트로 나뉘어진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탄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술, 건축공학, 디자인, 실내건축분양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직 교수들로 아름다운 나날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랜드 네임처럼 영조주택의 아름다운 나날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친건강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다.

청주 하북대지구 아름다운 나날의 경우 주차공간을 지하화해 당초 계획보다 가구수를 40세대나 과감하게 줄여 지상을 허브공원, 반딧불, 인공폭포, 실개천 등으로 구성하는 등 ‘도시 속 공원’ 같은 주거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업계 최초로 30평형 아파트에 최고급 빌라에 시공되는 고품질 천연원목마루 및 유해 전자파를 흡수하는 백초배지 시공 등 요소요소에 건강 아파트 컨셉을 심어 대단지 못지않은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 네트워크라이프빌리지 - 웰리드

아름다운 나날 외에 영조주택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는 죽전 웰리드(WELLID).

미국 CID(Common Interest developments/공동관심주거공간)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용인 죽전택지 지구에 75세대 규모의 고급빌라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두개의 하프가 결합되어 웰리드의 이니셜 ‘w’를 형상화한 BI는 서로 다른 삶과 삶이 조화한 완벽한 네트워크 라이프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감과 유대가 넘치는 삶,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의 양상들이 펼쳐지는 새로운 개념이 주거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가 위치한 죽전지구는 분당과 동일 생활권이라는 장점과 36만평의 대단위 녹지공간이 자연 그대로 보존 개발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최상의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영조주택이 선보이는 네트워크라이프 빌리지 웰리드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까지 다른 주거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을 갖추었다는 것, 단지 내에 조합 휘트니스센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커뮤니티룸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전문관리회사가 골프회원권과 콘도소유하고, 입주자들에게 골프부킹과 콘도여행의 특혜를 제공해준다. 이웃끼리 어울려 골프를 즐기고



싶거나, 콘도여행을 떠나고 싶으면 단지관리회사는 최상의 편의를 제공해준다. 자연히 입주자들간에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생기고, 이를 통해 취미, 레저, 문화적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네트워크라이프 빌리지란 바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같은 주거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강력한 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주거단지의 개념이다.

또 최고의 주거공간과 최상의 삶이 결합되는 주거단지인 만큼 웰리드는 완벽한 첨단보완·안전시스템과 국내 최고수준의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지원서비스,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라이프케어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탕주의 배경 '책임경영' 펼쳐

윤호원 회장은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검찰 수사관에 이어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과는 동떨어진 경력의 소유자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그동안 주택건설과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80-90년대 초 검찰 재직시절 검찰 내 주택조합위원장을 맡아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조합업무를 총괄했던 것. 더욱이 법무사 시절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지원하기도 했다.

오랜 건설경력 만큼 윤회장의 경영스타일은 소신있

고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건설업체가 입주 후까지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생활까지 설계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지향하는 것도 책임경영의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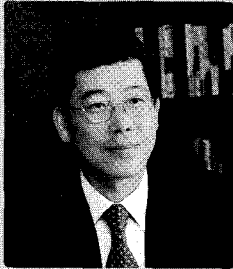
영조주택은 활기찬 주거문화를 제공하는 주택건설 목표에 걸맞게 개방된 기업문화를 이뤄가고 있다. 주택사업과 관련된 용지매입, 개발, 시공, A/S 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우수한 조직시스템과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간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팀단위의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자발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에서도 차별화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기업이윤 창출 토대인 지역사회로 기업이윤 환원'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본방침을 세우고 <아름다운 나날>이 분양된 대구, 청주, 공주 등지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주)영조주택은 주택건설, 도시산업,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막강한 맨파워와 최첨단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 건설 금융 시스템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선진 주거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최고의 Real Estate Delvelopment Group을 지향하고 있다.

향후 (주)영조주택은 수도권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주택서비스 분양의 특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입주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관리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터뷰



▲ 윤호원 회장

● 금년도 영조주택의 사업계획과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주택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조인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비전과 장기전략은 무엇입니까?

(주)영조주택은 1998년 설립된 이래도 공주를 시작으로 청주, 대구, 수원 등 지방에서 약 6천여 가구를 공급해왔고, 올해는 서울을 비롯하여 태백, 대구 등 사업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5천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주택시장은 서민주택, 중산층주택, 고급주택 등 각기 특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춘 상품 차별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건설회사보다도 한발 더 앞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자는 일차적인 욕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주거문화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아름다운 삶이 영위하는 앙상블이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옮겨 놓은 곳이 영조주택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죽전 웰리드이다. (미국 CID(Common Interest developments / 공동관심주거공간)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이제까지 다른 주거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었다는 것, 단지 내에 조합 휘트니스센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커뮤니티룸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브랜드인 “아름다운 나날” 및 영조주택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및 PR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에 노력할 것이다.

● 우리나라 주택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주택건설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협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대형 주택건설업체로 구성된 주택협회에 이렇게 가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택협회가 선진주거문화시대를 여는데 선도자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부 규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추진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주택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주택분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주택업계의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합니다.

● 주택시장이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초과수요 인해서 투기 억제와 가격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러한 정책은 경기 하락기의 시장과 산업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점차 대상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깊게 관여하게 되면 경기과열에는 안정화 대책을, 침체기에는 활성화 대책을 계속 반복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시장변화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공공주택시장을 발달시킨다면 이들 정책대상의 주거안정도 실현되며 동시에 민간 주택시장의 시장기능에 의한 조절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